

‘일류’ 대기업 안전·환경의식은 ‘삼류’였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판결문에 드러난 GS칼텍스 행태

유출량 900만ℓ→800ℓ로 축소·나프타 유출 숨겨 방재 골든타임 놓치고 주민 건강훼손 등 피해 키워

“기름 유출량 축소(900만ℓ→800ℓ)로 방재 작업 방해, 위험물질인 나프타 유출 사실 은폐로 방재인력 및 주민 건강 훼손, 사고 경위 파악하러던 해경 수사 방해, 일일 작업일지 및 물량제고관리 시스템 조작, 거리낌 없는 허위 정보 제공 등등.”

세계적 석유화학 기업을 표방해온 GS칼텍스가 올 초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단 하루동안 저지른 삼류 행태의 기록이다.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관련자들에게 대한 판결문은 ‘일류’ 기업이라는 GS칼텍스의 ‘삼류’ 안전·환경·사고 대응 방식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일류’ 대기업 맞나=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우이산호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GS칼텍스와 직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사고 대응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기름 유출 사고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적 재난 사고’로 ‘매우 단순한 정보조차 시급히 필요로 하고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데도’ GS칼텍스측은 유출량을 축소 은폐, 조작하고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면서 거리낌 없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 오염 방재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판결문대로라면 고용노동부의 평가에서 ‘공장안전운영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GS칼텍스 생산 1공장장 박모(54)씨와 원유저류탱장 김모(56)씨의 경우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35분께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여수 공장 원유 부두에 설치된 3개의 송유관과 충돌할 당시 최소 10만ℓ 이상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됐고 이 가운데 맹독성 물질인 나프타가 상당량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그러나 언론 보

도, 회사 경영진에게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해 단 800ℓ만 유출했다고 허위 공표했다.

인체에 해로운 나프타(납사) 다량 유출 사실은 아예 덮었다. 회사 부담만 고려하고 방재 작업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GS칼텍스의 사고 축소·은폐는 해양오염 사고의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 범위와 종류를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름이 10만ℓ 이상 해상으로 유출될 경우는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재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전국적인 방재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사고 당일부터 효과적인 방제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GS칼텍스 측의 거짓 정보로 즉각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

◇‘삼류식’ 사고 대응=GS칼텍스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밝힌 유출량 800ℓ에 대해 ‘짜담추기식’으로 허위 근거 자료까지 만들었다. 여기에 일일 작업일지까지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용의주도한’ 파렴치함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판결문에는 GS칼텍스측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해경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담함’도 드러난다.

사고 당일 GS칼텍스 상황실을 찾아가 여수해경 직원의 출입을 막는가 하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국의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GS칼텍스의 허술한 안전 관리 교육 등도 드러났다. 재판을 받은 GS칼텍스 임직원들은 회사 자체적인 예방규정 존재 사실 뿐만 아니라 옥외저장탱크 관리 규정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외로운 자선냄비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국투자자신택 앞에 무인 자선냄비가 설치됐지만 추운 날씨로 행인들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는 등 움츠린 탓에 9일 오후 온정의 손길은 뜸하긴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학가도 미생 열풍 전남대·조선대도서관 울들어 대출 1위 “금요일 본방 사수” 직장인은 회식 연기

TV 드라마 ‘미생’ 열풍이 직장문화

를 넘어 대학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작인 웹툰 ‘미생(未生·2013)’ 단행본이 올해 전남대·조선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꼽혔다. 비정규직 인턴사원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주인공의 일화가 청년들의 공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남대에서 미생 대출 순위는 8위(255회)였지만 올해는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인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2위), 아리랑(8위)과 먼나라 이웃나라(이원복·6위) 등을 누르고 1위(646회)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위 목향(전동조)의 409회 대출 기록을 가뿐하게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드라마 첫 방영 10월 17일 이전 한달 동안 63회 대출됐지만, 방영된 이후 같은 기간 대출 횟수는 89회로 늘었다. 조선대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8위에서 올 들어 1위로 대출 순위가 수직상승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에 위치한

알라딘 중고서점 광주점은 최근 미생 재고 수가 연일 제로다. 서점 관계자는 “TV 방영 후 웹툰 미생이 인기를 끌고 있어 중고는 구하고 싶어도 재고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미생 단행본을 ‘사고 싶거나 팔겠다’는 글이 최근 22건으로 급증했다.

미생은 직장인의 회식 문화도 바꾸고 있다. 직장인 김모(여·24)씨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에 하는 본방송을 사수하기 위해 팀장이 회식까지 미뤘다”며 “미생이 연말 잦은 회식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해 착한 ‘오과장’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62명을 대상으로 ‘미생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묻는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나는 미생의 장그래다’라고 답변한 수가 335명(4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내세울 것 없는 스펙으로 현실에 부딪히지만 열심히 사는 말단 직원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땅콩 리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퇴진

조양호 회장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10일 퇴진기로 했다.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의 ‘할인했다’는 식의 ‘황당함’ 해명마저 겹치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조 회장이 조 부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인사 조치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뒤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퇴진 의사를 밝힌

조현아 부사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조 회장은 IOC 회의 참석 후 이날 오후 귀국한 즉시 인천공항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조 부사장의 퇴진을 결정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종형기자 golee@

불났다면 아찔...아파트 소방호스 관창 도난 한달 넘도록 몰랐다

14개 단지 돌며 상습 절도 10대 2명 경찰에 붙잡혀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수습 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방호스 구리관창을 상습적으로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범인이 잡힐 때까지 한 달이 넘도록 도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

다. 불이 났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옥내 소화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남부경찰은 9일 아파트 단지 14곳의 옥내 소화전에서 관창 139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14·광주 S중 2년)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군 등은 지난달 23일 새벽 1시 광주시 남구 주월동 S아파트 2층~13층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에서 관창 22개(길이 15~20

cm·무게 2.5kg)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14곳에서 관창 139개(27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 H아파트 22동의 각 층을 돌며 38개의 관창을 훔친 뒤 8층에서 관창을 훔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입주민의 신고로 덩미를 잡혔다.

문제는 관창이 도난당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입주민 그 누구도 도난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일년에 한 번 꼴로 옥내 소화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는 소화전 조작 열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관창은 수돗물의 압력을 높여 멀리 보내는 장치 역할을 하는데, 관창이 없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평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자 4억 포함, 보 1억에 월 340만원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20층중 12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원룸형
매매가 - 6,5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 좋음, 20층중 13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7,0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 좋음,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7,0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